전국 지적발달장애인 권익 옹호·복지 증진 모색

광주서 오늘까지 17개 시·도 1천600여명 참가 복지대회
자기권리 주장대회·자조 단체 '연결고리' 토론회 등 진행

제39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기념식이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려 강기정 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한동기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각 시·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과 지적장애인, 가족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전국의 지적발달장애인들이 광주에서 권익 옹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는 26일 "27일까지 사흘간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등지에서 '제39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주최, 광주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주관, 광주시·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된다.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는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권익 옹호 및 복지 증진을 모색한다. 광주에서는 2005년 제22회 대회 이후 19년 만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천600여명이 참가해 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자조 단체 '연결고리' 토론회, 광주지역 문화·관광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제39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기념식은 이날 오전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한동기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각 시·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등 1천4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익·복지 향상,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강지윤 광주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박영환 광주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구지부 사무국장, 정규연 광주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 한상필 광주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산구지부 사무국장, 박성태씨 등 5명에게 광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강 시장은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인식 개선은 물론, 모든 사람이 차별 없고 함께 돌보는 도시를 만들자는 다짐의 자리"라며 "광주는 1980년 5·18 때 고립되고 소외돼 봤기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광주는 차별 없는 돌봄을 통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함께 힘 모아가자"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전선 지중화율, 지역간 편차 크다

광주 39.1%·전남 9.3%·서울 62.2%…지자체 재정 부담 원인

경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이 26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62.2%인 반면, 전남은 9.3%로 집계됐다. 두 지역 간 격차는 6.7배에 달한다.

지중화율 상위 지역은 서울(62.2%), 대전(57.6%), 인천(47.1%), 세종(46.7%), 부산(45.3%)으로 모두 45%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광주는 39.1%로 7개 광역시 가운데 5위였다.

이에 비해 하위 지역인 충남(12.5%), 전북(12.4%), 강원(11.2%), 전남(9.3%), 경북(7.8%)은 모두 13% 미만으로 나타나 상위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지중화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지목된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을 부담한다. 이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 여력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전선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4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반대로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30% 이하에 그쳤다.

전선의 지중화율은 2019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지중화율 격차가 꾸준히 문제 제기돼 왔음에도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박지혜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지역 경관 및 안전에도 더 열악해지는 셈"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도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 비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400개 콘텐츠기업 참가 '광주에이스페어' 개막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전시회인 '2024 광주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에이스페어는 29일까지 열린다.

이날 '광주에이스페어' 개막행사는 개막 선언, 환영사, 개막퍼포먼스, 주요 부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IP의 변주와 다양한 콘텐츠의 탄생'을 주제로 세계 30개 국가에서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일러스트 등 400개 콘텐츠 기업이 503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콘텐츠 경쟁력, AI기술 경쟁력을 두루 갖춘 광주는 앞으로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방직공장터 주상복합 비주거 의무비율 하향 '제동'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자료 보완 요구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옛 방직공장터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면적을 낮추려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당위성 설명자료, 추가 기부채납 계획안 등 자료를 보완해 사업자 측에서 제출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사업자 측은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에 들어설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을 광주 지역 통상 기준인 15% 이상이 아닌 10% 이상으로 적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와 함께 상가 비율이 줄어든 만큼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가운데 160억원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주거 외 용도 의무 비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등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어 해당 개발 예정지의 비율 하향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박선강 기자

金지사 "24시 어린이집 전 시·군 확대"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찾아 지원 약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현대힐스테이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전 시·군 확대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날 어린이집 현장 방문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등이 자리를 함께해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를 격려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7월부터 평일과 토요일 야간에도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2개소(화순현대힐스테이트어린이집·화순한양립스어린이집)를 운영하고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야간 경제 활동이나 출장, 질병으로 보육할 곳을 찾지 못하는 모든 학부모를 위해 1-2명의 교사와 조리사가 상주하고 있어 긴급돌봄이 필요하면 시간당 1천원으로 한 달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영선 현대힐스테이어린이집 원장은 "이용하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람을 느끼며 운영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5명 정도가 이용하는 등 모두에게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소개했다.

김영록 지사는 "24시 어린이집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해 돌봄 공백 해소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범 사례"라며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